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2호 【루게 제24755호】 주체103(2014)년 12월 8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 오중흡 7련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58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오중흡 7련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58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와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인 오일정 동지, 한광상 동지, 리병철 동지가 동행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인 항공군 중장 최영호 동지를 비롯한 군부대의 지휘성원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수석차레의 현지지도를 받은 이곳 군부대에는 주제적인 항공무력강화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령군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주체의 항공무력의 발전로정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불후의 헌신과 로고의 령도사이며 우리 항공무력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산아이고 고귀한 혁명유산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부대의 비행사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크나큰 사랑속에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결사의 항로만을 날아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앞으로 조국의 푸른 하늘에 영웅적위훈의 비행운을 새겨감으로써 수령님과 장군님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58군부대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항공군령도업적이 집대성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혁명사적교양실을

새로 꾸리며 비행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부대의 도보비행 훈련장, 탁상비행연습장, 비행조종연습 장실을 돌아보시면서 새 년도 전투정치 훈련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도보비행훈련장에서 진행되는 훈련을 보시면서 비행사들에게 군부대의 비행장뿐만 아니라 생소한 비행장들에서의 리착륙기동방안과 지형을 깊이 연구 학습시키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비행사들이 컴퓨터에 의한 비행조종연습 기제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모습도 주의깊게 보아주시고 이런 훈련을 많이 하는것이 좋다고, 모든 비행사들이 공중에서 비행체제를 잘 유지하도록 요 구성을 높이면서 훈련을 실속있게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이와 함께 훈련기 재들을 더욱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비행사들에게 불리한 날씨조건에서의 비행방법을 잘 교육시키고 부단한

좌석 및 연습기재훈련을 통하여 완전히 숙련시켜 그들이 언제 어느때 어떠한 불리한 정황이 조성되어도 맡겨진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비행사들이 육체훈련도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매 항공 및 반항공군사단들에 실내수영관과 실내체육관, 야외체육 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체육시설들을 현대적으로 꾸려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부대 전투비행사들의 공중매복전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훈련이 시작되자 조종간을 역세게 틀어잡고 하늘로 날아오른 비행사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훈련명령판철의 나팔에 다져온 높은 비행술을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찬바람부는 지휘소의 로대에 서시여 조국의 하늘을 가르며 과감하게 기동하는 붉은 매들의 모습을 환한 미소속에 보시면서 언제 보아도 우리 비행사들이 비행기를 정말 잘 탄다고, 훈련을 잘한다고 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향

공군싸움준비에서 기본은 비행사들이 높은 비행술을 소유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주체의 비행전법, 빨찌산식전법을 부단히 연구완성하며 비행훈련을 생활화, 습성화, 체질화하여 모든 비행사들이 구름속 만리, 불길속 만리도 뚫고 맡겨진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용감무쌍한 하늘의 용사들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훈련에 참가한 비행사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훈련성적을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아주신 추격기 302호기를 돌아보시면서 비행사들과 기술근무성원들이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열렬한 흠모심을 안고 사적비행기 관리를 잘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체취가 스며여있는 사적비행기들을 책임적으로 더 잘 관리하여 싸움의 그날 붉은 매들의 맨 앞장에서 조국수호의 항로를 날으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부대의 침실, 식당, 취사장 등을

돌아보시면서 비행사들의 생활을 친어버이 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침실에 들리시여 비행사들을 만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침대는 편안한가, 세면장은 어떻게 리용하는가를 물어주시고 태양열물가열기를 설치해주는것을 비롯하여 비행사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 위한 은 정 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취사장의 조리대에 차려놓은 음식감들을 보시고 당에서 금싸래기처럼 아끼는 비행사들의 식사보장을 맡은 취사원들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휘성원들이 뜨거운 정과 사랑을 안고 비행사들의 식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해 아글라글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온실들을 건설하여 한겨울에도 신선한 남새를 떨구지 않고 보장해주며 능력이 큰 돼지공장을 건설하여 고기를 풍족하게 공급해주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부대의 비행사들이 당중앙에서 명령을 내리면 언제든지 출격할수 있게 경사적인 전투동원태세에서 훈련하고 또 훈련함으로써 새 년도 전투정치훈련에서 집단적혁신을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비행사들, 기술근무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현지시찰과 비행훈련지도를 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58군부대 전체 군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와 맺은 정을 피줄처럼 간직하고 싸움준비완성에 비약의 박차를 가함으로써 싸움의 그날 김정은비행대의 영웅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 결사의 맹세를 굳게 다지

었다. 본사정치보도반





# 강성국가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불면불휴의 현지도



↑주제철생산체계를 완성한 성진제강련합기업을 현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제98(2009)년 12월  
←비닐론솜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주제99(2010)년 2월



서두수발전소를 현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제64(1975)년 3월



검덕광산을 현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제64(1975)년 7월



무산광산연합기업을 현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제77(1988)년 8월



량책베어링공장을 현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제98(2009)년 11월



락원기계연합기업을 현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제97(2008)년 11월



3월5일청년광산을 현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제99(2010)년 9월



새형의 CNC공작기계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제99(2010)년 12월



황해제철련합기업을 현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제99(2010)년 2월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을 현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제99(2010)년 6월











# 부정의의 행위는 정의의 대응을 유발시키는 법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기자의 질문에 대답

【평양 12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요즘 남조선피괴들이 미국땅에서 일어난 그 무슨 특대형해킹사건이라는것을 우리와 연계시키며 황당무계한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시대와 공중을 버릇된 괴뢰들이 상전의 반공화국소동에 비위를 맞춰가며 늘어대는 처사라는것을 모르는 우리가 아니다.

하지만 하도 턱없이 우리를 곁고드는데 대해서는 스쳐지날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소니 픽처스》라는 영화제작보급사가 그 누구로부터 영문도를 해킹공격을 당하고있다고 한다.

공격이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영화제작 보급사의 모든 체계가 완전히 마비되고 관련업무가 전반적으로 중지된 상태에 있으며 여태의 심한 손해를 보게 될것이라고 한다.

바빠진 미국이 량방수사국과 중앙정보국, 국내안정성을 비롯한 숱한 수사기관들을 총동원하여 해킹공격에 대한 긴급수사를 벌인다.형량으로 파괴된 영화제작보급사의 체계복구에 나선다 하면서 복닥소동을

을 피우고있다고 한다.

우리는 미국의 최대영화제작보급사라고 하는 《소니 픽처스》가 미국땅 어느 구석에 자리잡고있는지 또 무슨 못된 짓을 저질러 치명적인 봉변을 당하고있는지 다는 알지 못하며 구태어 그에 대하여 알 필요를 크게 느끼지 않는다.

다만 얼마전부터 미행정부의 대조선전대시정책에 편승하여 우리의 최고존엄을 위협으며 테로를 부추기는 불순한 영화화를 만들어 방영하려고 한 영화제작보급사가 바로 《소니 픽처스》라는것만은 똑똑히 알고있다.

따라서 천하무돈한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바로 《소니 픽처스》영화제작보급사 일것만큼 상당한 징벌을 받아야 한다는것이 변함없는 우리의 립장이다.

우리는 이미 평화롭고 안정하게 살려는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와 매 나라의 자주권을 함부로 짓밟는 침략의 원흉이며 인권유린의 왕초인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적의 무덤속에 매장하기 위한 정의의 공조, 반미공조에 떨쳐나설것을 온 세계에 호소한다.

반미공조로 정의가 부강의를, 진리가 허위를 짓부셔버리자는 우리의 이 호소는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반미, 반제투쟁

의 열풍을 세치게 몰아오고있다.

이번 미국의 《소니 픽처스》영화제작보급사에 대한 해킹공격도 우리의 이 호소를 받들고 펼쳐나선 우리의 지지자, 동정자들의 의로운 소행이 분명할것이다.

결국 《소니 픽처스》영화제작보급사가 당한 처참한 봉변은 철두철미 못된 처사에 대한 응당한 징벌이고 부정의에 대한 정의의 대응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아마 그래서 악명을 떨치고있는 영화제작보급사에 무차별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는 성원들이 자기들을 《영화의 수호자들》이라고 멋있게 공개하고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문제로 되는것은 당한 봉변을 두고 부끄러워해야 할 당사자인 미국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돌이켜볼 대신 우리를 조준하고 수사방향을 맞추고있는가 하면 상전의 비위를 맞추는데 이골이 난 남조선 괴뢰들은 동족대결의 체질화된 악습을 버리지 못한채 미국땅에서 벌어진 사태를 무리하고 우리와 연계시키며 《복소행》을 내뿜고있다는것이다.

북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테로영화를 제작하고 그 예고편이 소개되었을 때부터 우리의 강경립장이 언급되었기때문에 《복

소행》이 분명하다고 하는데 그때 미국에 대한 핵세제까지 포한 우리의 보복이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북의 해킹능력이 대단하기때문에 《복소행》이라고 떠들고있는데 대단하다는 공력을 그렇게 써먹을 우리라고 생각하는가.

미국에 대한 이번 해킹공격에서 《한글자》가 발견되었기때문에 《복소행》이라고 하는데 나라안 영문자가 대부분인 조건에서 다른 그 누구라기보다 미국자체 또는 영국의 소행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더우기 《한글자》는 북과 남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살고있는 우리 민족 모두가 사용할것인데 그것이 과연 《복소행》으로 단정할 초보적인 근거라고 된단 말인가.

그런가 하면 이번 《소니 픽처스》영화제작보급사에 대한 해킹공격수법이 최근년간 여러차례 걸쳐 남조선괴뢰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든 해킹공격수법과 같기때문에 《복소행》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사람들은 남조선이 당한 피해가 괴뢰들 내부작간이 아니라 우리가 아닌 다른데서 초래된것으로 보고있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공격수법이 같은것으로 하여 《복소행》이

라는 근거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저어 《복소행》이 아니라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그자체가 바로 《복소행》이 될수 있는 《직접적근거》로 된다는데 그런 어처구니없는 근거를 믿을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는가.

아무리 모략과 남조에 이골이 나고 환장이 됐다 해도 분수가 있는 법이다.

일래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다같이 제 집안에서 무슨 불상사가 터지면 무렵대고 남을 곁고드는데 버릇된 상습범들이고 전파자들이다.

남조선피괴들의 경우만 놓고보아도 《<친안> 호침물사건》, 《연평도포격전》, 《7.7전선대란》, 《농협전선방파사건》, 《3.20해킹사건》, 《GPS전파관사건》, 《무인기사건》 등 제 집안에서 비정상적인 사건이 생길 때마다 무작정 우리를 곁고드곤 하였다. 이에 대하여서는 생각이 다 아는 일이다.

못된 버릇이 지속되면 악습이 되고 나중에는 그것을 본업으로 일삼게 되는 법이다.

이제는 제땅이 아닌 대양건너 상전의 땅에서 벌어진 사건까지 《복소행설》로 여론을 돌리고있는 지경에 이른것이 바로 남조선피괴들이다.

무고한 동족을 힐문하는데것으로 상전의 비위를 맞춰보려고 불분사납게 야망을 떨고있는 식민주의수인의 비굴한 몰골에 온 겨레가 짐을 빼고있다.

지금처럼 미국에 무렵대고 공부하다가 온 세계처럼 미국에 벌어진 반미성전의 도가니 속내에 달려들어서 무슨 정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미국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미국의 더러운 영화제작보급사인 《소니 픽처스》에 대한 타격을 들이 대고있는 《영화의 수호자들》뿐 아니라 세계의 도처에 수억, 수천만의 지지자, 동정자들이 있다.

이들은 앞으로 인류공영의 원수이며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인권유린의 왕초인 미제국주의의 각을 뜨기 위한 여러가지 형식의 성전을 이르는 곳마다에서 더욱 세게가 벌리게 될것이다.

더 큰 봉변을 당하기 전에 다른 나라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자주권을 짓밟으며 극악한 테로를 부추기는 《더 인퍼뷰》와 같은 불순영화화를 추사에 불사르는 긴급 조치부터 취해야 할것이다.

부정의의 행위가 계속될수록 그것을 짓밟아버리기 위한 정의의 대응은 더욱 거세지게 될것이다.

#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함이 지식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자

지금 지식경제의 시대이다. 여러 가지 새 기술과 발명들이 쏟아져나오고 제품 생산속도가 비상이 빨라지고 있는 오늘 모든 단위들이 세계와 경쟁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자면 일군들의 사고방식, 기업경영양식에서부터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하다면 일군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 단위를 발전시켜야 할것인가. 물론 해당 단위의 실정에 따라 그에 대한 답은 여러가지이겠지만 평양326전선공장 일군들의 경영전략은 경이할만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함을 세차게 지피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경계를 열어놓아야 하겠습디다.》

머칠건 취재과정에 우리는 올해 공장에서 새 기술을 도입한 건수가 무려 100여건에 달한다는 사실에 주목을 돌려게 되었다.

새 기술창조능력이다 곧 그 단위의 발전수준이다.

하다면 이 공장의 새 기술 창조능력은 어떻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설수 있었는가.

우리는 공장의 기술력량을 분석해보았다.

공장에선 현장기술자들까지 합하여 수백명의 기술력량이 있었을 것이다. 이들에게는 올해 1건이상씩 새 기술을 창안해야 할 의무가 지워져있다.

이것은 공장일군들이 기술자들에게 내세우고있는 요구인 동시에 기술자들의 탐구열

## 지식자원관리능력이자 단위의 발전수준

평양326전선공장 일군들의 사업을 놓고

의를 자극하고 분발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기도 하다. 기술자들에게 있어 해마다 1건이상의 새 기술을 창안한다는것은 결코 수월한것이 아니다. 최신과학기술정보를 제대로 자료화하고 지식명역을 부단히 넓힐 때만이 새로운 기술을 부단히 창안해낼수 있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장일군들의 의도였다.

공장의 모든 기술자들이 자기 부분의 최신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기 위해 이악한 탐구활동을 벌이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교육, 과학연구기관들과의 기술교류를 맹렬하게 진행해오고있다. 매 기술자들이 자기 분야의 최신 과학기술에 대한 자기자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이 과정에 기술자들의 자질은 눈에 띄게 높아졌으며 그 어떤 기술과제가 제기되어도 주저없이 뛰어들어 해결해나가고있다.

올해 1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보고 적지 않은 기술자들이 절망과 국한, 새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과제를 스스로 맡아안고 연구사업에 뛰어들었다.

어떤 기술자는 늙주조업 생산공정의 주요설비인 압연기를 국산화할것을 맡기하였고 어떤 기술자는 원가가 높은 유약액을 재생할수 있는 새 기술을 창안하겠다고 하였다. 기술자들의 새 기술창안 열의는 비상이 높았고 그

경쟁열도 간단치 않았다. 그러나 새 기술혁신안이 나왔다 하여 그것이 그대로 생산과 경영활동에 이바지하는것은 아니다. 창안된 새 기술이 반드시 생산에 도입되어야 부가 창조되고 공장의 발전이 이룩된다는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알고있으면서도 일군들이 이 조건, 저 조건에 빙자하며 우는소리만 하여 창안된 새 기술이 제대로 도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평양326전선공장 일군들은 새 기술에 대한 도입문제를 그 어떤 경제성실리를 얻는 문제이자 전에 기술자들의 정신풍발문제를 즉 공장의 흥망을 좌우하는 판권적인 요인으로 보고있다.

실사 많은 품이 더러라도 창안된 새 기술을 제대로 도입하여야 기술자들속에서 첨단단기업을 점령하려는 열의가 더욱 높아져 세계와의 기술경쟁, 제품경쟁을 당당히 벌일수 있다는것이 이쪽 일군들의 뚜렷한 주전이다.

늙주조업생산공정의 압연기를 국산화하기 위한 기술연구가 완성되었을 때였다.

당시 공장에서는 수요자의 이 손잡이 기다리는 내열성이 좋은 에나멜용신, 고충승강기 가운뎃기를 비롯하여 새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도입준비가 한창이였다.

알려진 국산화실현이 당장 생산에 지장을 주는 일은 아니므로 새 제품개발과

같이 눈에 띄는 기술혁신안을 먼저 생산에 도입한 후에 내밀어도 큰 의견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왜냐하면 압연기와 같은 큰 기계제품의 제작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품을 요구하고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배인은 창안한 새 기술혁신안이 하루빨리 도입되기를 바라는 기술자의 심정을 먼저 헤아렸으며 자기의 결심책임을 기술자들에게 주는 영향을 내다보았다.

그러하여 압연기제작도 다른 기술과제들의 도입과 함께 추진되었다.

지배인이 직접 통성기계원 합기업소에 가서 압연롤의 주물품을 부어오고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집단과도 면담을 맺어주었다. 빠른 기간에 압연기가 제작되어 우리의 기술, 우리의 실비로 늙주조업생산공정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여러 기술혁신안들이 창안되는속속 생산에 도입되어 생산경영활동에서는 큰 실리가 나타났다. 자기의 창안품이 제품으로 되어나오고 생산정상화에 큰 기여를 했을 때 기술자들의 증지는 참으로 큰 것이다.

여기에 뒤따르는 당조직의 옹양한 평가사업 또한 기술자들의 긍지를 북돋아주고 더욱 분발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분기마다 기술자들의 성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엄격히 총화하고 우수한 기술자들에게 대한 평가사업을 여

러가지 방법으로 하고있다. 특히 공장총업원들이 모인 회회에 기술자들의 성과를 먼저 생산에 도입한 후에 내밀어도 큰 의견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왜냐하면 압연기와 같은 큰 기계제품의 제작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품을 요구하고있기때문이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어떤 최첨단과학기술이라도 우리의 것으로 연구도입할수 있다는 신념과 배심을 가지고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대담하게 진공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특혜성사예 여러 단위들에서 최신과학기술에 의거하여 경영활동의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있는 현실이 주목된다.

최근 3년동안에만 도 서해갑문발전다리의 CNC화과 배전로 조종의 현대화, 대동강유역물관리의 정보화, 과학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것을 비롯하여 최신과학기술 도입에서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다.

그 비결을 분석해보면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세운 때부터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평양326전선공장 일군들은 처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뚜렷한 발전전략을 세우고 실현해나갈 때 모든 단위가 강한 경쟁력을 가진 단위로 솟아올수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철옥

관심을 돌리고 밀어주는 것만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어떤 최첨단과학기술이라도 우리의 것으로 연구도입할수 있다는 신념과 배심을 가지고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대담하게 진공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특혜성사예 여러 단위들에서 최신과학기술에 의거하여 경영활동의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있는 현실이 주목된다.

최근 3년동안에만 도 서해갑문발전다리의 CNC화과 배전로 조종의 현대화, 대동강유역물관리의 정보화, 과학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것을 비롯하여 최신과학기술 도입에서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다.

그 비결을 분석해보면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세운 때부터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평양326전선공장 일군들은 처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뚜렷한 발전전략을 세우고 실현해나갈 때 모든 단위가 강한 경쟁력을 가진 단위로 솟아올수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철옥

해운성에서

그 심의를 엄격히 진행해오고 있다.

과학기술발전계획에는 주요부서일군들은 물론 과학연구단위 과학자들과 해당 단위 기능부서도 참가한다.

하나하나의 기술발전계획을 주제관직립장에서 따져보고 또 따져보면서 과학적합성에 기초하여 자금을 지출하고 기술력량을 편성하는것은 이곳 성에 세워진 사업체제이며 질서이다.

일단 심의에서 결정된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대하여서는 끝까지 실현되도록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기풍 또한 반발을 만 한다.

성일군들은 과학기술발전계획이 최첨단수준을 이루는 기술과제인것만 과학, 교육부문의 협동연구를 적극적으로 벌려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이런 작정은 현실에서 큰 은을 내고있다.

우선 과학자들의 전문지식과 로동자들의 풍부한 현장경험이 합쳐져 우리 식의 최신과학기술개발에서 뚜렷한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이런 성일군들은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세울 때부터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하나의 기술발전계획을 세우며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최신과학기술을 개척하고 도입하도록 이끌어주고있으며

여러 단위들에서도 활발히 벌어져 경영활동의 과학화에서 큰 진전이 이룩되었다.

과학기술발전계획수행과정에서 정성적으로 료해하고 총화하고 평가사업을 방법론 있게 해나가는 당위원회와 정책적지도도 훌륭한 결실을 안아오는 근본요인이었다.

항만관리국에서 집합상사능력을 높이고 집합관리의 정보화를 실현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최신과학기술도입이 동시에 벌어질 때 당일군들이 현창에 나서고자 연구사업이 중도반단없이 끝까지 완성되도록 정책적지도를 짜고들었다.

올해 국가적중점과제로 설정된 대동강유역물관리의 정보화, 과학화실현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과학자, 기술자력량을 편성하고 기술연구 사업을 활발히 벌릴 때에도 성일군들이 현창의 현장에 자주 내려가 과학자들에게 편리한 연구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해주는 사업을 하였다.

품이 들이지 않고 절로 되는 일만 많은 법이다.

오늘날 특혜성에서 서해갑문 부하전력관리체제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봉화, 성천, 순천갑문의 갑실현을 현대화하여 감시정보능력을 높인것을 비롯하여 뚜렷한 과학기술발전이 이루어졌고 있는 성과를 철저히 과학기술을 대하는 성일군들의 관공문에 달려있다.

지식경제시대에 일군들의 과학기술관심이 어떻게 따라 해당 단위의 발전수준에서 큰 차이가 생기는것이다.

전 혁 철

## 원격교육에 의한 전민 학습열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식경제시대의 지금은 과학자, 기술자들은 말할것도 없고 로동자들도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기술형의 인간, 지식형의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원격교육에 의한 전민학습 열풍이 날로 더욱 강렬하게 타변지고있다.

지식경제시대에 나라의 지식자원이 날이 풍부해지고 있는 좋은 일이 아닐수 없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 대학 입학생들만 놓고보아도 해마다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있다.

황해철련합기업소 40명의 근로자들로 원격교육대학 강의가 시작되었지만 불과 4년전이다. 그리고 2011년에는 13개 단위에 180여명의 근로자들이, 2012년에는 52개 단위에 870명, 2013년에는 152개 단위에 1천여명, 올해에는 503개 단위에 5 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원격교육 대학 학생으로 되었다.

여기에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각이한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다 망라되어있으며 공장, 기업소의 책임일군들도 있고 현재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교원들도 있다.

교육내용의 폭이 대단히 넓을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화상을 통해 강의를 실감있게 받을수 있고 생산실현

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과학기술문제들에 대한 리해를 즉석에서 할수 있는 우월성으로 하여 원격교육대학을 지망하는 근로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있다.

현재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교원들은 지식경제강국 건설에 참담히 이바지할 애국의 열정을 안고 교육활동을 벌리면서도 잠시간을 리용하여 원격교육을 통한 제2, 3의 전공지식을 다지고있다.

원격교육에 의한 전민학습 열풍은 이렇게 직위와 직무, 지역에 관계없이 애국의 신장이 고동치고있는 그 어느 일터에서나 세계 타변지고 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 대학 학장 김일남동무의 말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습열의가 비상이 높아지고있으며 현재 수백명의 학생들이 파견안을 앞사나가고있다고 한다.

이들속에는 생산의 현대화, 과학화실현에 이바지할 가치있는 새 기술과제를 수행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다음해에는 원격교육대학 학생들속에서 여러명의 발명가가 나올것으로 본다라고 한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는 수십명의 졸업원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 학생으로 입학하였다. 이들속에서 지배인, 조급당비서, 기사장도 있어 이목을 끌었다. 이것을 통해서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튼튼한 인제력량을 꾸리고 그 자원에 의거하

여 부흥을 안아오려는 공장의 발전전략을 직감할수 있다. 이런 단위들이 날이 갈수록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올해 략량원에근인수지이용 품공장에서만도 40명의 졸업원들이 원격교육대학에 입학하였다.

현재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평양기초식품공장, 평양화학발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많은 생산단위들에서도 실생활체현을 통하여 원격교육의 우월성을 절감하고 해마다 입학생대렬을 계속 늘여가고 있다.

당의 조치에 의하여 각 대학들에도 원격교육대학이 창설되고있는데 김일성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에 대한 지방차이로 대만하고 있다.

은 나라에 타변지고있는 원격교육을 통한 전민학습열풍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식경제강국으로 졸업할지는 내 조국의 승기를 느낄수 있다.

원격교육대학강의를 받고있는 학생들은 학습내용의 한 로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식경제시대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 피라게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렇다. 이 땅에서는 공민이라면 그 누구나 이런 물음을 심장에 안고 살아야 할것이다.

나는 조국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어떤 자질을 갖추었는가?

본사기자

일군들을 위한 결심재택자문봉사활동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

피라는 노력에 의하여 과학기술자료들에 대한 정보분석 수준이 높아졌으며 정보발굴이 지난 시기에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주는것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필요에 따라 통보사일군들이 직접 현장에 내려가 기술도입이 끝날 때까지 자료봉사 사업을 하고있다.

오래전부터 통보사와 친숙한 관계를 맺고있는 라남관방기계련합기업소 지배인을 비롯하여 많은 단위 일군들이 자문봉사의 덕을 크게 보고있다고 말하고있다.

최근에는 남양제염소, 미림해합사공장을 비롯하여 명로 소문 나지 않은 공장, 기업소일군들도 정보봉사를 파견하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찾아오고있다.

일군들속에서 정보의식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세계적인 우리의것을 더 많이 창조하기 위한 열풍이 교정에 넘쳐나고있다.

몸소 명예총장이 되어서 주제건축발전의 새로운 리적 표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실현으로 받들어갈 똑같은 열의에 넘쳐 새로운 건축생산들을 창조하기 위해 지혜를 합쳐가고있는 평양건축종합대학의 교원들,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지는 오늘의 벅찬 시대에 어찌 건축인들을 키워내는 것만이 우리 몫이라고 할수 있느냐.

우리로부터 조국청사에

합정남도과학기술통보사의 정보봉사활동에서 지난 시기와 구별되는 새로운것은 봉사활동의 영역이 보다 넓어졌기이다.

우선 중앙과학고속망이 실현되고 일군들이 먼길을 다니지 않아도 자문봉사를 받을수 있고 기술자들끼리 화상으로 상담도 하고 기술실의도 진행할수 있으며 원격교육대학도 운영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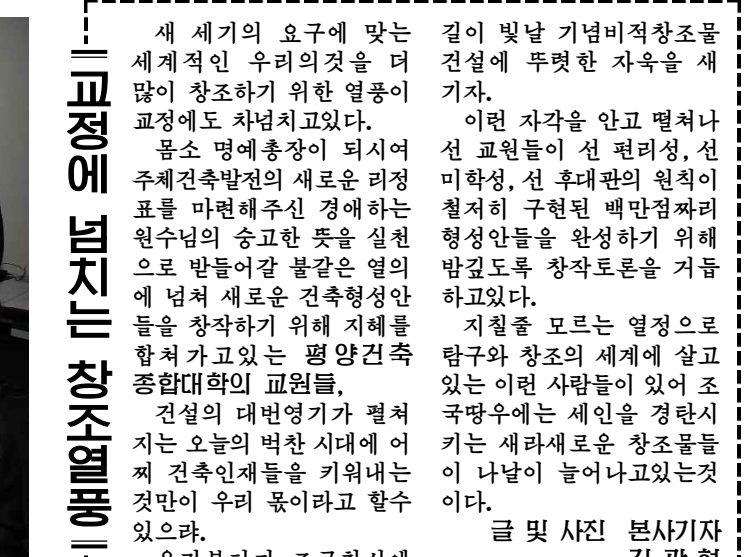
자문봉사뿐만아니라 기술종재 봉사도 하고있는데 이에 대한 일군들의 반응이 아주 좋다.

지금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는 합정남도에서 창조된 경험을 일반화하여 각 도의 과학기술통보소를 빠른 시간안에 지역과학기술봉사의 종합적거점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전개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시대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는 오늘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자료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있다.



이런 작정은 현실에서 큰 은을 내고있다.



